

대학논문집의 학술적 활용성 조사:계열간비교 및 언어학주제의 개별논문집을 중심으로 *

A Measure of Academic Use of University Journals: Focus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Disciplines and Each Journal in Linguistics

배 순 자(Soon-Ja Bae) **

목 차

- | | |
|--------------------------|-------------------------------|
| 1. 서론 | 3. 대학논문집의 학술적 활용성에 대한 조사 |
| 1. 1 연구의 목적 | 3. 1 조사의 진행 |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2 조사결과 |
| 1. 3 선행연구 | 3. 2. 1 계열별 활용도 |
| 2. 대학부설연구소의 기능과 대학논문집 발간 | 3. 2. 2 언어학 주제에 대한 개별 논문집 활용도 |
| 2. 1 대학부설 연구소의 기능과 발전과정 | |
| 2. 2 대학논문집의 발간경향 | 4.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급격히 양산되고 있는 대학논문집을 각 주제의 연구자들이 학술연구에 어느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측정을 위한 조사는 학문의 계열간 이용성의 차이와 임의로 선택한 언어학 주제의 각 대학논문집에 대한 개별 이용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대학논문집의 이용성은 학문계열간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언어학 주제의 각 개별 논문집간 활용수준에도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논문집에 대한 차등화와 특성화를 통한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ABSTRACT

At present we have access to a plethora of university journ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use of these university journals in research fields by focussing on the level of usage in each discipline in addition to the level of usage of each university journal in linguistics. The results indicate the level of academic use of each journal in linguistics as well as of usage levels between disciplines. From these results, the follow-up measure is requested for differentiation and specialization of university journals.

* 본 연구는 1996년도 전주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7년 10월 11일

1. 서론

대학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등인력을 생산하는 최종의 기관이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국면을 맞고 있어 특히 대학은 이에 대응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적 역할수행을 더욱 강하게 요청받고 있다. 이제껏 대학의 현실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 세계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그동안 양적 팽창에 맞먹는 질적발전을 갖지 못했던 대학이 그간 가해진 각종 규제를 풀고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강구책의 하나로 1994년 제1기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되어 21세기에 대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속에는 고등교육의 개혁에 관한 항목들이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혁의 일환으로 포함되는 대학평가는 대학기능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하려는 취지에 맞추어 단일한 잣대가 아닌 다양한 평가기준에 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과거에 중시되었던 외적 규모보다는 내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의 허실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정리작업에는 대학내에서 발간되는 각종 논문집에 대한 평가도 포함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실행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기준의 적용으로 자칫 기계적으로 일괄처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양적팽창율이 높았던 1960년대 이후 각 대학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질적발전의 일환으로 대학내에 부설연구소를 적극 설립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1996년도에 집계된 부설연구소 수는 약 1400개소에 달하였으며 대학내 대부분의 논문집 발간사업을 맡게 됨으로써 각 연구소에서 출판하는 간행물의 종류 또한 상당 수에 이르게 되었다.

대학은 지식의 생산활동에 있어 다른 어떤 조직에 비해 큰 신뢰를 받아 왔으며 이는 대학이 그동안 누려온 일종의 지적편승으로서 이제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점검되어야 할 한 부분이라 하겠다. 수없이 양산되고 있는 대학간행물에 대한 학술적 활용성의 검증은 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해서 뿐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업적 평가에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대학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교수업적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또는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가는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논문집의 이와같은 의미를 고려하여 대학논문집의 학술적 활용성을 측정함과 아울러 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을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다 합리적인 대학평가의 한 자료

로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1 연구의 목적

대학의 설립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자유를 승인받으며 불멸의 초국가적인 세계적 성격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제도적 교육기관이긴하나 지극히 독자성을 갖는 기관으로서 연구와 가르침에서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그 설립이래로 '상아탑'이라는 상징아래 다른 사회적 조직에 비해 대체로 독립된 자율과 권위를 보장받아온 셈이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란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결과의 검증에서 다소 특혜를 누려온 대학내의 여러 활동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지금 그 효과를 측정해 봄은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전혀 검증되지 못했던 대학의 연구기능과 직결되는 논문집을 대상으로 그 학술적인 효과를 측정해 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 속에는 대학논문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대학평가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과 관련된 연구자들에게 주요 연구활동의 장이기도 한 대학논문집이 학술적인 기능에서 자칫 소홀히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

대학내에 연구소를 두어 전문적인 연구기능과 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겸하도록 한 것은 대학설립 초기부터 있어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이 고등교육을 위한 최고의 장으로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하므로 대학연구소의 설립은 지극히 자연적으로 요청되어 특히 학술활동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근본목적은 대학논문집의 학술적인 활용을 검증하려는 것으로서, 대학논문집의 발간을 맡고 있는 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경향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도 의도하고 있다.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대학내 대부분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맡고 있는 대학부설연구소의 발전과 기능 및 대학논문집의 발간 경향을 이해하고 아울러 대학논문집이 일선 연구자들의 연구진행에 어느정도 활용되는가를 측정하는 데까지이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본 연구의 이론에 참고할 수 있는 선행된 연구에 접근하고 국내 대학부설연구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직접 조사한다. 그리고 대학논문집의 학술적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성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학위논문과 학회지를 대상으로한 인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인용정보의 입수는 1단계로 해당 분야의 국내 박사학위논문을 선정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석사학위논문이나 중앙학회지를 2단계 대상자료로 선정하여 대

상자료에 인용 또는 참고된 대학논문집의 논문을 누계하는 방법에 의한다. 먼저 1단계의 조사대상 자료는 1994년 8월-1996년 8월에 수여된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으로 하되 학위논문이 수적으로 부족한 예·체능계열의 각 주제에 대해서는 석사학위논문, 회계학과 산업공학의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제의 주요 학회지를 2단계 조사대상 자료로 포함시킨다.

결과의 분석은 대학논문집의 활용도에 있어 학문분야간의 차이를 알기 위한 계열별로 본 활용도와, 특정 주제의 개별 논문집간에 나타나는 활용수준을 알기 위한 개별활용도로 구분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계열별측정을 위해서는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법정계열, 경상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로 구분하여 각 계열별로 3종 이상의 주제를 선정 조사한다. 그리고 개별논문집의 측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인문계열의 언어학주제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순위대로 30종까지의 논문집을 알아본다.

조사의 결과는 측정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낸다. 계열별측정에서는 대학논문집을 학술지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어 국내연구자들의 연구진행에서 활용된 학술지 중 대학논문집의 활용도를 백분율에 의해 그 수준을 일반 학술지와 비교한다. 그리고 대학논문집에 대한 개별측정의 결과는 선

정된 주제와 관련되는 대학논문집의 활용 순위를 지수에 의해 나타내므로써 각 논문집간의 등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인용조사의 집계에서 간행빈도를 변수로 취급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대학논문집의 간행은 통상적으로 년 1회의 빈도로써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1. 3 선행연구

1960년대 중반이후, 도서관학(문헌정보학)분야에 도입된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학문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설계 및 운영을 위한 데이터제공의 수단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용분석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이의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를 통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거나¹⁾ 학문간의 주제 인접성을 구조화하고²⁾ 저자간의 상호관련도를 규명하는 데³⁾ 많은 잇점을 얻고 있다.

학술지의 평가방법에는 크게 주관적방법과 객관적방법이 있는데 편집발행기관에 의해, 전문가들의 추천에 의해, 해제지나 서평지에 의해 평가하는 주관적방법에 비해 이용빈도나 인용문헌의 빈도를 조사하여 빈도수가 높은 학술지를 중요잡지로

1) J. H. Westbrook, "Identifying Significant Research", Science 132(1960):1221-1234.

2) H. S. Small, "Co-citation Context Analysis and the Structure of Paradigms", JI. of Documentation 36(1980): 183-196.

3) H. D. White & B. C. Griffith, "Author Cocitation: As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ASIS 32(1981):163-171.

선정하는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려하게 된다. 연구자가 이용하는 자료는 반드시 연구내용에 활용성이 있기 보다는 연구자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이던가 연구자가 인용하는 나름대로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이 인용분석 기법이란 반드시 객관적일 수 없다는 지적⁴⁾이 있다. 그러나 인용빈도에 의한 잡지 순위 결정은 대체로 만족한 결과를 보인다는 주장⁵⁾과 인용문헌의 빈도수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표시하는 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⁶⁾ 외에도 여러 논문들이 인용 분석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인용 분석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 방법에 의해 진행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 중 국내에서는 1972년에 문헌의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⁷⁾를 시작으로 주요 학술지의 이용 및 선정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학문분야별의 인용경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학논문집을 대상으로한 인용조사의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으나 1989년, 학문분야와 정보매체에 따라 학술논문의 발표행태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연구⁸⁾가 있다. 이 연구에

서는 논문발표에 있어 이·공학분야의 연구자들은 주로 학회지를 통하며,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은 주로 대학논문집을 통한다는 사실을 분석해 내었다. 최근에는 1993년, 37편의 문헌정보학 논문을 대상으로 타 학문분야와의 연관성과 정보매체별 분포도 및 국내의 중심잡지와 외국의 중심저자를 조사한 논문⁹⁾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에는 가필드(Garfield, E.)에 의한 인용빈도수를 기준으로 화학분야의 학술지간 순위를 결정하는 연구¹⁰⁾가 있었다. 그는 이 연구에서 핵심잡지의 선정에 인용빈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후 여성학분야의 핵심잡지의 선정을 위한 연구¹¹⁾와 문헌정보학분야의 핵심잡지를 연구용과 교육용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논문¹²⁾을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대학부설 연구소의 기능과 대학논문집 발간경향

-
- 4) John Martin, "Citation Analysis", JI, of Documentation 31(1975):290-211.
 - 5) Eugene Garfield, "Citation Analysis as a Tool in Journal Evaluation", Science 178(1972):471-479.
 - 6) D.J. Price, Citation Measures of Hard Science, Soft Science, Technology and Nonscience in E. Carnott and D. K. Pollack ed, Communication Among Scientists and Engineers, Health Lexington Books, 1970
 - 7) 김선호, "핵심잡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5권 1호(1988):53-69.
 - 8) 한복희, "우리나라의 학술잡지의 발달과정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6권 1호(1989):3-14.
 - 9) 유재욱,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행태분석서", 정보관리학회지 제10권 2호(1993):145-167.
 - 10) Eugene Garfield, "Citation Analysis as a Tool in Journal Evaluation", Science 178(1972):471-479.
 - 11) Thura Mack, "A Model Methodology for Selecting Women's Studies Core Journals", LISR (13)1991):131-145.
 - 12) Belen Altuna Esteibar and F.W.Lancaster, "Ranking of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y Research and Teaching Relatedness", The Serials Librarian 23(1992):1-10.

2. 1 연구소의 기능과 발전과정

대학내에 전문연구소를 부설하려는 의도는 크게 두가지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학술진흥의 핵심체인 대학이 본래의 주요 기능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는 학문적 협동작업의 하나로써 사회봉사활동의 수행과 관련지을 수 있다. 즉 학과중심의 교육조직으로는 복합적인 대학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학제성이 강해지는 학문의 추세를 고려하여 연구소를 통해 상호협력된 연구를 지원하고자 함이었다.

서울대학교의 천연과학연구소를 최초로 하여 설립되기 시작한 대학부설연구소의 초기 설립현황을 「'96년판 대학연감」을 참고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이후 '60년대에 들어와 대학연구소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 기간동안

<표 1> 국내 대학부설연구소의 초기 설립현황

설립년도	연구소명	부설대학
1946	천연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1948	국사연구원	조선대학교
1955	교육연구소	연세대학교
1957	지역사회개발연구소	연세대학교
1957	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1957	아세아연구소	고려대학교
1958	국토종합개발연구소	경희대학교
1958	열대의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설립된 연구소는 41개 대학 93개소에 이른다¹³⁾. 이 중 대부분은 '60년대 후반에 신설된 것으로 '60년대 초반에 비해 약 2배의 연구소가 새로 생겼다. '60년대의 이같은 현상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학이 급격한 양적팽창을 가지면서 대학교육에 일어날 질적저하를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사회적 조건도 대학연구소의 설립에 가세하는 이유가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전역에 일어난 산업개발과 경제적 부흥, 그리고 사회교육에 가담하는 학문적 협력활동의 일환으로서이다.

대학에 부설되는 연구소의 활동은 대학내의 고등인력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환경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된 결과를 산업현장에 전달·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대학내의 부설연구소가 설립되는 데에는 대학의 본

13) 大學研究機關要覽, 서울: 대학연구기관요람사, 1975. 를 참고.

질적인 과제를 위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가 하면 국가로부터 위임, 통제되는 교육목적에 따른 외부적 이유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때마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집중되는 전문주제와 성격이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소는 대체로 사회과학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각 지방대학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지역문화연구소를 갖고 있으며 시대별로도 연구소의 설립은 조금씩 다른 경향을 갖고 있다.

대학내의 연구소 설립이 집중된 '60년대를 보면, 초반에는 주로 문화와 산업경영에 집중되고 후반에는 공업기술과 경영 관리에 관련된 연구소가 신설되었다. 당시 설립된 대학연구소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인문과학 9개소(9.7%): 사회과학 61개소(65.6%): 자연과학 23개소(24.7%)이다¹⁴⁾.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소가 급증되어 초반에 이미 '60년대 설립 연구소의 68%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신설되었다. 대학별로 보면 평균 3.5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통일문제 관련연구소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대학연구소의 증가가 더욱 심해져 '70년대의 증가율 18.5%에 비해 월등히 높은 46.5%의 증가율을 보였다¹⁵⁾.

이후 국내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학의 부설연구소는 다분히 당

시의 대학외적 환경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90년대의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군부정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반영한 새마을연구소는 10개교 이내로 급격하게 줄어들은 반면 학생생활연구소는 100여개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 때부터 나타나는 대학연구소의 주요 현상은 지금껏 월등히 우세하던 사회과학분야가 자연과학분야에 비해 둔감한 증가를 보이며 자연과학분야에서도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소가 신설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지역문화, 지방자치,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소가 신설되는 점이다.

1996년 말 현재 국내 대학부설연구소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96한국대학연감」을 참고하여 조사해 보면 전문대학을 제외한 133개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연구소는 총 1,398개소이다. 이중 비학술연구소가 74개소(5.3%)이며 절대다수인 1,324개소(94.7%)가 학술연구소로서 이들의 학술연구소를 학문분야별로 구분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한편 부설연구소의 지속성을 알아보기로 총 대학부설연구소를 그 설립년대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이를 보면 국내의 대학에 부설되는 연구소는 기존의 부설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편중 나타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같은 경향은 연구소의 기능이 중복되고

14) 大學研究機關要覽, 전계자료에서 조사 집계한 결과임.

15) 大學研究機關要覽, 전계자료와 「'82한국대학연감」을 참고하여 조사 집계한 결과임.

〈표 2〉 대학부설연구소의 학문분야별 분포

학문분야	연구소수(%)
인문과학	220(16.6%)
사회과학	561(42.3%)
자연과학	531(40.0%)
통합주제	14(1.1%)
	총 1,324개소(100%)

〈표 3〉 대학부설연구소의 설립년대별 비교

학문분야	연구소수(%)
1960년대 이전	12개소(0.8%)
1960년대	106개소(7.6%)
1970년대	204개소(14.6%)
1980년대	499개소(35.7%)
1990년대 중반까지	577개소(41.3%)
	총 1,398개소(100%)

운영정책의 부재나 부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연구작업의 충실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대학설립과 운영의 자율화에 의해 이와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므로 부설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에 대한 질적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임이 분명해진다.

2. 2 대학논문집의 발간경향

대학논문집이란 대학자체 내의 종합논문집과 부설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중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학술성이 있는 논문만을 게재하는 논집(논총, 연구지, 학술발표지 등 포함) 및 관련 학과에서 발

간하는 논문집 등을 말한다.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 중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논문집발행인 것은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에서는 거의 관례처럼 되어온 경향이다. 각 대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보면 대체로 학술행사와 간행물 발간사업이 주류를 이루며 국제교류활동, 연수 또는 현장지도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이 된다.

특히 각 대학연구소에서는 논문집을 포함하여 수종의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논문집 발행이 연구소의 업무실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우 수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논문집 발간 이외의 연구소 활동을 조사된 자료¹⁶⁾를 통해

보면 연1회 이상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 연구소는 전체의 3분의1선이며 연1회 이상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연구소는 10% 선에 불과할 뿐이다. 단행본이나 보고서를 포함한 간행물의 발간은 전체의 30%에 해당되는 연구소에서 평균 5종 이상의 발행실적을 보인다.

1960년 이후부터 높은 팽창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소들은 설립 초기부터 대체로 1종 이상의 간행물을 발간해 왔다. '60년대에 운영된 연구소 총98개소 중 연구논총이나 논문집 또는 연구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연구논문의 결과를 발행하는 연구소는 79개소(80.6%)에 달하며 그외 보고서나 학보를 통해 학술활동을 나름대로 소개하고 있는 연구소는 10개소였으며 전혀 발간물이 없는 연구소는 9개소 뿐이었다¹⁷⁾.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소들이 설립목적으로 연구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결과의 발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것임을 말해준다.

한편 '96년 말 현재 우리나라 대학연구소들의 논문집 발행상황을 보면, 운영되는 거의 모든 연구소에서 논문집을 발간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3분의 1 정도의 연구소에서만 논문집을 발간하는 대학이 있는 등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자체의 통합논문집보다는 각 연구소를 통해 분야별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이후

대학부설연구소들이 주제에 따라 핵분열 화됨으로써 대학내 거의 모든 학술활동은 연구소를 통해 실행시키고자 한 경향으로 생긴 현상이다. 논문집의 발행은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심사나 평가의 과정은 거의 모든 연구소에서 하지 않는 실정에 있다.

3. 대학논문집의 학술적 활용성에 대한 조사

3. 1 조사의 진행

본 조사는 대학논문집의 역할 중 학술적인 활용성을 측정하려는 것이므로 학술성이 있는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회지를 조사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은 연구자들의 학술작업의 결과로서 뿐만 아니라 연구업적으로도 우위의 평가를 얻고 있으며 학회지 또한 각 분야별 학술지로서 우위의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학문분야별의 논문선정은 주제별 분류체계에 따랐으며 주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학위수여자의 소속학과에 의해 분류하였다.

객관적인 결과를 분석하기에 박사학위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주제에 대해서는 2단계에 걸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논문의

16) 박준식, 대학부설연구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학교육 74(1995), p.80.

17) 전개된 자료 「大學研究機關要覽」을 참고.

편수가 부족하여 1987년 이후의 박사논문과 1994.8-1996.8 동안의 석사학위논문을 추가자료로 포함시켰다. 이 경우 석사학위 논문을 2단계 조사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해당 계열의 학회지 발행이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한 현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계학과 산업공학 주제는 학문의 학제성이 강할 뿐 아니라 논문의 편수도 부족하여 동일기간에 발행된 해당분야의 주요 학회지¹⁸⁾에 게재된 논문을 추가자료로 포함시켰다. 계열별에 따

른 조사를 위해서는 각 계열별로 3종 이상의 주제를 포함시켜 객관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으며 주제선정은 본 조사자의 임의에 따랐다. 각 계열별로 포함된 주제와 조사자료의 편수는 <표 4>에 나타내었다.

인용분석에서의 빈도계산은 논문의 진행을 위해 인용되거나 참고된 선행의 연구를 일단 학술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기 주제의 학위논문과 학회지에 인용 및 참고된 횟수를 누계하였다. 집계

<표 4> 계열별 조사대상자료 및 편수

계열	주제	조사자료편수		
		석사논문	박사논문	학회지
인문계	철학		95	
	언어학		142	
	한국문학		105	
	외국문학		204	
예체능계	미술학	132	19	
	음악학	110	11	
	체육학	103	27	
상경제	경제학		116	
	경영학		124	
	회계학		52	127
법정계	법학		131	
	정치학		103	
	행정학		158	
이학계	미생물학		172	
	수학		95	
	물리학		119	
	화학		142	
공학계	건축공학		119	
	기계공학		110	
	산업공학		47	132

18) 「대한산업공학회지」 Vol.1- . 대한산업공학회, 1974- . 계간. 「회계학연구」 Vol.1- . 한국회계학회, 1973- . 계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다른 연구¹⁹⁾에서는 인용되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차등계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박사학위논문과 학회지에 대한 가중치의 차별적용은 하지 않았다. 이는 박사학위논문과 학회지가 자료 측면에서는 학술성의 수준이 다소 차등 인정될 수 있으나 논문게재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학회지에 게재하는 연구자의 대부분은 이미 학위취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중치의 차별적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학논문집을 학술지의 한 종류로 포함시켜 일반 학술지와와의 활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각 논문마다 각주의 인용된 횟수와 참고문헌을 대학논문집과 일반학술지별로 구분 누적하여 그 빈도수를 계수하였다. 개별조사를 위한 언어학 주제의 논문은 대학논문집별로 각각 그 빈도수를 계수하고 지수화에 의해 논문집들간에 등간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개별활용도의 조사는 인문계열의 언어학 주제를 선정하여 '94년 8월부터 '96년 8월까지 발표된 해당 주제의 국내박사학위논문 142편을 분석자료로 삼았다. 언어학 주제를 조사대상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계열별 조사결과 대학논문집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계열이 인문계열이었으며 인문계열 중 언어학 주제의 논문진행에 참고된 논문집이 대체로 그 주제를 구분하기에 명확하였으므로 개별논문집의 활

용순위를 위한 조사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문계열에서 조사대상 주제로 선정된 철학분야의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고되는 자료가 학술지보다는 단행본에 치중되는 경향이며, 한편 문학분야는 장르에 따라 연구자료를 활용하는 이용행태가 매우 불균일한 경향임을 조사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어 언어학주제의 선정이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되었다.

3. 2 조사결과

3. 2. 1 계열별 활용도

대학논문집이 일선 연구자들의 학술연구에 활용되는 상황을 계열별로 비교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의 결과는 <표 5>-<표 11>과 같다. <표 5>-<표 10>은 연구자들의 연구진행에 활용되는 자료유형 중 학술지로서의 대학논문집이 기타의 다른 학술지와 비교하여 어떤 비율에 의해 활용되는가를 계열별로 각각 나타낸 것이며 <표 11>은 계열별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 5>와 같이 인문계열의 각 주제는 비교적 높은 비율에 의해, 주제간에 있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대학논문집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결과는 선행된 연구²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예가 있다.

<표 6>의 예·체능계열에서도 인문계열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다소 높은 수준에

19) Belen Altuna Esteiber and F. W. Lancaster, op. cit.

20) 한복희, 전계논문.

〈표 5〉 인문계열 대학논문집의 활용 백분율

자료구분 \ 주제	철학	언어학	한국문학	외국문학	평균
대학논문집	61.3	36.0	42.3	41.8	45.35
기타학술지	38.7	64.0	57.7	58.2	54.65

〈표 6〉 예·체능계열 대학논문집의 활용 백분율

자료구분 \ 주제	미술학	음악학	체육학	평균
대학논문집	27.5	25.8	75.0	42.77
기타학술지	72.5	74.2	25.0	57.23

서 대학논문집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주제별로 보면 미술학과 음악학은 유사한 비율로써 비교적 저조한 수준으로 대학논문집을 이용하는 결과를 보인다. 반면 체육학에서는 상반되는 현상으로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보인다. 이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육학분야가 예·체능계열의 다른 주제에 비해 학술지의 종수가 다소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7〉과 〈표 8〉은 사회과학분야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두 계열 모두 대학논문집에 대한 이용율이 높지 않은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상경계열이 법정계열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는 있으나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이용성에 있어서는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9〉와 〈표 10〉은 자연과학분야의 두 계열에 대한 대학논문집의 활용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표 9〉의 이학계열은 각 주제 모두 대학논문집의 이용율이 전 학문분야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10〉의 공학계열은 이학계열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진행을 위해 대학논문집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선행의 연구²¹⁾와 동일한 결과라 하겠다.

〈표 11〉은 대학논문집의 활용도를 계열간의 비교를 위해 나타낸 것으로 학문의 계열별로 비교해 본 대학논문집의 활용정도는 각 계열별로 연구자들의 자료이용행태에 따라 큰 차이를 갖는다고 하겠다. 전 계열에서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활용성을 보이고 있으나 인문계열의 연구자들이 가장 높은

21) 한복희, 전개논문.

〈표 7〉 법정계열 대학논문집의 활용 백분율

주제 자료구분	법학	행정학	정치학	평균
대학논문집	21.8	38.0	29.4	29.73
기타학술지	78.3	64.0	70.6	70.97

〈표 8〉 상경계열 대학논문집의 활용 백분율

주제 자료구분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평균
대학논문집	30.9	37.0	46.3	38.07
기타학술지	69.1	63.0	53.7	61.93

〈표 9〉 이학계열 대학논문집의 활용 백분율

주제 자료구분	미생물학	수학	화학	물리학	평균
대학논문집	0.9	14.1	7.0	8.5	7.62
기타학술지	99.1	85.9	93.0	91.5	92.38

〈표 10〉 공학계열 대학논문집의 활용 백분율

주제 자료구분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평균
대학논문집	12.5	10.4	12.0	11.63
기타학술지	87.5	89.6	88.0	88.37

〈표 11〉 대학논문집 활용 백분율의 계열별 비교

계열	인문	예체능	법정	상경	이학	공학
백분율	45.9	42.8	29.1	38.1	7.6	11.6

수준으로 그들의 연구진행에 대학논문집을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상경계열과 법정계열의 순으로 사회과학분야가 예상보다는 다소 낮은 활용성을 보이며

이·공학계열을 포함한 자연과학분야는 극히 저조한 이용수준을 보인다.

자연과학의 이용을 저조현상은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의 설립경향이 그동안

자연과학 분야가 다소 부진한 이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소가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94년 이후의 발표논문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최신의 자료를 참고하는 자연과학의 연구경향을 고려하면 연구소의 수적인 차이에서만 기인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우기 높은 이용율을 보이는 인문과학 경우는 연구소의 설립초부터 자연과학 분야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의 부설연구소가 설립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활동에 대학논문집을 크게 활용하지 않는 이용행태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2. 2 언어학주제에 대한 대학논문집의 개별 활용도

대학에 부설된 연구소들은 그 설립목적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나 실제 운영되는 상황은 연구소마다 매우 큰 차이를 갖는다. 국내 대학연구소들을 계열별로 본다면 그들간에 나타나는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각 연구소별로 본다면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대학별 연구소들간 뿐만 아니라 동일 대학내에 부설된 연구소들간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부설연구소들의 책화에 따른 결과로부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현상은 발간되는 논문집의 질에 대해서도 다소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결과는 논문집의 활용성에 까지 작용되어 동일 주제내의 개별 논문

집간에도 활용면에서 차이를 갖게 될 것이다. 연구소들간의 이러한 차이를 연구활동에 활용되는 수준면에서 파악하고자 실시한 2차조사에서는 <표 12>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96년 대학연감」에 의해 확인된 현재 우리나라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언어학 관련 연구소는 총 41개소였으며 인문과학분야의 종합연구소까지 포함하면 98개소이며 이들 연구소에서 평균 1종 이상의 관련 논문집을 발행하고 있다. 국내의 각 대학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의 유형을 발행주체별로 보면 대학종합논문집과 대학부설연구소 간행의 논문집 외에도 관련 학과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는 분석대상자료로서 학과 발간의 논문 중 학생회 주관으로 발행하는 논문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사의 결과는 각 논문집의 활용순위에 따라 30종의 개별논문집을 나타내되 측정치의 표시는 백분율에 의한 지수를 표시함으로써 각 논문집간의 상대비를 파악하여 그 등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결론

대학이 위임받은 기본적인 기능은 연구와 교육, 봉사라 집약될 수 있다. 기존의 대학조직으로는 부족한 연구와 봉사기능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부설연구소의 운영은 대학의 내실화 차원에서 여러 대학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96년 말 현재 1,400여개소에 이르는 대학부설연구소가

〈표 12〉 언어학주제 대학논문집의 개별활용 순위

순 위	논문명	창간년도	간행연구소	부설대학교	지수
1	어학연구	1963	어학연구소	서울대학교	16.9
2	관악어문연구	1975	국어국문학과	서울대학교	9.9
3	말	1959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9.9
4	국어연구	1994	국어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9.6
5	동방학지	1977	국학연구소	연세대학교	5.3
6	동양학	1970	동양학연구소	단국대학교	4.5
7	어문논집	1956	국어국문학과	고려대학교	4.4
8	연세어문학	1970	국어국문학과	연세대학교	3.8
9	한국어문교육	1986	국어교육학회	고려대학교	2.5
10	인문과학	1963	인문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2.4
11	어학	1969	어학연구소	전북대학교	2.3
12	국어국문학	1965	국어국문학과	부산대학교	2.2
13	한양어문연구	1982	국어국문학과	한양대학교	2.0
14	동아문화	1963	동아문화연구소	서울대학교	1.9
14	건국논집	1960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1.9
15	언어와 언어학	1969	언어연구소	한국의국어대학교	1.8
15	민족문화	1957	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1.8
15	효성연구논집	1967	효성여자대학	효성여자대학	1.8
16	어문논집	1964	국어국문학과	중앙대학교	1.7
16	동아논총	1964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1.7
16	어학교육	1969	어학연구소	전남대학교	1.7
17	어문연구	1967	어학연구소	충남대학교	1.6
17	경북논집	1973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1.6
17	언어연구	1979	경희언어교육연구소	경희대학교	1.6
17	어문	1981	국어국문학과	서강대학교	1.6
17	어문	1960	국어국문학과	건국대학교	1.6
17	한국학	1973	한국학연구소	계명대학교	1.6
17	한국학	1974	한국학연구소	한양대학교	1.6
18	어문논총	1967	국어국문학과	경북대학교	1.4
18	동남어문논집	1991	국어국문학과	동아대학교	1.4

있다. 대학연구소의 기능 중 특히 연구기능의 실적으로 간주되는 학술논문집의 발간 또한 연구소의 수 만큼이나 엄청난 현상이다. 특히 근간에 와서는 거의 모든 대학내 연구결과는 부설연구소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들 논문집의 발간은 대학교수들의 연구업적의 평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대학논문집의 발행은 제대로 된

여과장치 없이 양산되고 있어 대학연구소의 연구기능이나 교수들의 연구업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다소의 문제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학논문집의 활용성이 기계적으로 일괄처리 되어서도 아닐 것이다. 대학논문집의 이와같은 중요성에 비해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부족함을 고려하여 시작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논문집의 발간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논문집의 발간처로서 중시되는 대학부설연구소의 발전을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현 대학논문집이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어느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그 학술적인 활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의 설립은 '60년대부터 활발히 시작되어 연구소의 관련 주제, 성격, 설립의 증가, 운영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국가의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그 운영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연구소의 설립경향은 초기에는 사회과학 분야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설립된데 비해 '80년대 이후부터는 자연과학 분야가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소 운영은 시대에 변동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대학논문집의 학술적인 활용성을 알기 위한 조사에서는 먼저 학문의 계열별로 나타나는 이용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인문계열이 가장 우위의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상경계열, 법정계열, 공학계열, 이학계열의 순위로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분야간에는 지극히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대학논문집의 활용 정도를 국내 일반학술지와 비교해보면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은 거의 반반 수준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 학술지의 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논문집의 활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두번째 조사로서 언어학 주제를 선정하여 개별논문집의 활용도를 알아보았다. 개별에 따른 대학논문집의 활용도

를 측정함에 있어 연구자가 소속 또는 관계되는 대학의 논문집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각 개별 대학논문집의 활용수준을 다소 구별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96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대학을 제외한 41개 대학에서 언어학 주제의 독립된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7개 대학에서는 인문과학연구소를 두어 언어학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관련학과에서도 논문집을 발행하는 대학이 있었다. 조사의 결과 연구자들의 연구진행에 활용된 대학논문집 중 순위내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논문집은 독립연구소 및 관련 학과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이었으며 종합논문집으로서는 4개의 대학논문집이 순위 내에 포함되었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발행된 대학논문집으로서 한번도 이용되지 못한 논문집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대학논문집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계열별의 차이는 이미 주지한 대로 학문성격에 따른 연구자의 자료이용행태에서 비롯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논문집간에 나타나는 활용수준의 차이는 대학논문집이 권위 있는 학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논문집에 대한 평가와 차별화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사항이라 하겠다.

한편 대학논문집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소속되거나 관계하는 대학의 논문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보다 강한 경향도 있어 인용분석만으로는 객관적인 결과를 얻는 데

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진행상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국내 대학논문집의 활용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아울러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대학논문집의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논문집의 발간업무를 대학부설연구소의 주요 사업으로 정착시키고 대학논문집의 발간처를 일원화한다.

둘째, 연구소의 난립과 기능의 중복으로부터 야기되는 대학부설연구소의 부실화를 방지하여 발간되는 학술지가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연구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으로 차별화, 특성화시킴으로써 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을 현실화시킨다.

셋째, 대학논문집이 주요 학술지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 외부심사제도를 두어 학회지에 준하는 학술지로서 인정받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개별 활용도조사의 결과로부터 참고할 수 있듯이 대학논문집도 그 발간주체에 따라 차별화시킨다.

넷째, 학술성이 인정되는 대학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합당되는 연구업적평가제를 적용함으로써 대학논문집이 학술적인 논문의 주요 발표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다.

다섯째, 대학부설연구소와 논문집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실시에 의해 연구소의 자구적인 노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

참고문헌

- 具本湖. 1987. “社會奉仕機關으로서의 大學附設研究所,” 대학교육 78 :25-29.
- 具滋沃. 1983. “産學協同事業에 있어서 大學附設研究所의 役割과 實像,” 산학협동 38호:12-14.
- 김선호. 1988. “핵심잡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5권 1호:53-69.
- 大學研究機關要覽 '75. 1975. 서울: 대학연구기관요람. 박준식. 1995. “대학부설연구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학교육 74: 74-96.
- 유재욱. 1993.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행태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10권 2호:145-167.
- 李相燮. 1987. “大學研究所의 役割과 活性化方案,” 기술관리 49호: 37-42.
- 한복희. 1989. “우리나라의 학술잡지의 발달과정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6권 1호:3-14.
- 洪一植. 1985. “大學의 研究機關,” 대학교육, 16: 26-30.
- 韓國大學年鑑 '82. 1982. 홍석우 편. 서울:

- 애드영. 韓國大學年鑑 '96, 上下. 1996. 홍남석 편. 서울: 한국대학신문.
- Belen Altuna Esteibar and F.W. Lancaster. 1992. "Ranking of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y Research and Teaching Relatedness", *The Serials Librarian*, Vol.23: 1-11.
- Eugene Garfield. 1978. "Citation Analysis as a Tool in Journal Evaluation", *Science*, Vol.178: 471-479.
- H. D. White and B. C. Griffith. 1981. "Author Cocitation: as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ASIS* 32:163-171.
- H. S. Small. 1980. "Co-citation Context Analysis and the Structure of Paradigms", *Jl. of Documentation* 36:183-196.
- J. H. Westbrook. 1960. "Identifying Significant Research", *Science* 132 :1221-1234.
- Thura Mack. 1991. "A Model Methodology for Selecting Women's Studies Core Journals", *LISR* 13:131-145.